레버쿠젠 손흥민(오른쪽)이 19일(한국시간) 메르세데스 벤츠 슈타디온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의 태클을 제치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2골·1도움으로 만점활약을 펼쳤다. 슈투트가르트(독일) | AP뉴시스

손흥민, 완전체 킬러로 진화

슈투트가르트전 2골 1AS 맹활약
좌우 넘나드는 10km 넘는 활동량
A매치 피로누적 우려 가뿐히 극복

손흥민(22·바이엘 레버쿠젠)이 또 한 번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19일(한국시간) 메르세데스 벤츠 슈타디온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2014~2015 독일 분데스리가 8라운드 원정은 '손흥민의·손흥민에 의한·손흥민을 위한' 무대였다. 손흥민은 전반 초반 '멀티 골'을 뽑아낸데 이어 전반 41분 완벽한 침투 패스로 카림 벨라라비의 추가골에 일조했다. 그의 원맨쇼를 앞세워 전반을 3-0 리드한 레버쿠젠은 후반 들어 3골을 내줘 무승부로 마감했지만 손흥민은 충분히 빛났고, 모두가 찬사를 보냈다.

●진화하는 완전체 킬러

진가를 확인시키는데 10분이면 충분했다. 킥오프 4분 만에 상대 문전 오른쪽을 돌파하던 손흥민은 자신을 향해 흐른 볼을 슈투트가르트 골키퍼를 제치고 밀어 넣은데 이어 5분 뒤상대 골키퍼가 잘못 걷어낸 볼을 페널티지역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으로 연결해 재차 골망을 갈랐다. 크로스바를 맞힌 전반 11분 슛이나 후반 막판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힌 헤딩슛, 둘 중 하나만 성공했다면 해트트릭도 가능할 뻔 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제 몫을 해줬다. 순도 높은 득점력으로 정규리그 3·4호 골을 찍었고, 올 시즌 8호 골(리그 4골·리그컵 1골·유럽 대항전 플레이오프 2골·본선 1골)을 기록하면서 맹위를 떨쳤다. 지난 시즌은 12골을 뽑았다.

이날 손흥민에게 포지션은 별 의미가 없었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가 정리한 분석 자료에는 손흥민이 4-4-2 포메이션의 왼쪽 날개로 뛴 것처럼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전방과 측면, 중앙을 두루 오갔다. 측면에서도 좌우를 가리지 않았고 하프라인부터 빠른 스피드로 금세 상대 지역 한복판까지 이동했다. 10km를 훌쩍 넘는 폭넓은 활동량도 인상적이었다.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프리 롤'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건 레버쿠젠도 손흥민을 확실히 '믿고 쓴다'는 반증이다.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사실 손흥민이 처한 상황은 딱히 긍정적이지 못했다. 우려가 컸다. 울리 슈틸리케(독일) 신임 감독의 호출을 받아 국가대표팀에 합류, 파라과이(10일·2-0 승)-코스타리카(14일·1-3 패)로 이어진 10월 A매치 2연전에 나섰지만 100% 만족할 수 없었다. 풀타임을 소화할만한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었다. 본인도 "솔직히 피곤하다"고 털어놨다. 장거리 비행과 시차 문제였다. 결국 코스타리카전 도움 1개에 그쳤다. 그러나 후유증은 없었다. 레버쿠젠의 로저 슈미트 감독은 돌아온 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했다. 15일 도착한 뒤 2일 간 쉴 것을 주문했다. 8시간의 역시차가 풀렸고, 피곤함도 사라졌다.

필드 밖에서의 스트레스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근거도, 실체도 없는 모 여성그룹 멤버와 열애설과 2014인천아시안게임 출전 불발을 둘러싼 아쉬움을 그는 슈투트가르트전을 통해 완벽하게 극복했다. 끊임없이 '완전체 공격수'로 진화하고 있는 손흥민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오리온스의 비타민 길렌워터, 5연승 이끌다

25점 13리바운드…모비스 81-74 제압
SK, kt와의 통신사 라이벌전 17점차 대승

고양 오리온스가 5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오리온스는 19일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KCC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와의 홈경기에서 승부처에서 폭발한 외곽포를 앞세워 81-74로 승리했다. 오리온스는 시즌 개막 후 5연승으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했다. 우승후보로 꼽힌 3강 모비스·SK·LG를 모두 격파한 오리온스는 2위 그룹과의 승차를 2경기로 벌리면서 시즌 초반부터 독주체제를 갖췄다. 3연승을 마감한 모비스는 3승2패로 kt와 함께 공동 3위로 내려앉았다.

오리온스와 모비스의 시즌 첫 격돌은 많은 농구팬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리온스와 '디펜딩 챔피언' 모비스의 첫 맞대결인데다 겁 없는 신인 이승현(오리온스)과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 함지훈(모비스)의 만남에도 시선이 모아졌다.

모두의 예상대로 두 팀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두 팀은 3쿼터를 57-57로 마쳤을 정도로 일진일퇴의 공방을 이어갔다. 오리온스가 달아나면 모비스가 추격하는 형국이었다. 3쿼터까지 두 팀 사이에 가장 큰 점수차는 7점 차에 불과했다.

승부처였던 4쿼터 들어 오리온스의 외곽포가 빛났다. 59-59 동점에서 김강선(10점)이 3점슛을 성공시킨데 이어 상대 파울로 얻은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켰다. 이어 트로이 길렌워터(25점·13리바운드)의 2점슛으로 65-59로 달아난 오리온스는 용병 찰스 가르시아(11점) 가 또 다시 3점포를 림에 적중시켜 68-59로 도망갔다. 승기를 잡은 오리온스는 이후 가르시아가 혼자 7점을 보태 모비스의 추격을 뿌리쳤다.

부산에서 벌어진 '통신 라이벌'전에서는 SK가 웃었다. SK는 모처럼 공격력이 폭발한 가드 김선형(22점·5어시스트)을 앞세워 kt를 72-55로 대파했다. 2쿼터까지 32-26으로 근소하게 앞선 SK는 3쿼터 19점을 몰아넣어 51-33으로 달아나며 승리를 예감했다. SK는 2연패를 끊고, 2승2패로 승률 5할에 복귀했다. 창원에서는 동부가 LG를 80-62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원정에서 귀중한 1승을 챙겼다.

고양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오리온스의 트로이 길렌워터가 19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KCC 프로농구' 홈경기에서 모비스 리카르도 라틀리프의 수비를 따돌리고 골밑 득점을 올리고 있다. 길렌워터는 25점을 올리며 팀의 개막 5연승을 이끌었다. 고양 | 뉴시스

이승현, 전국체전 기간 프로경기 못 뛴다

졸업예정자 이중등록 문제로 벤치 지킬듯
김지후 등 루키 대상 포함…농구계 반발

'전국체전에 안 나가도 KBL경기는 못 뛴다.'

농구계의 애매한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고려대 이민형 감독은 19일 고양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승현과 김지후를 다가오는 전국체전에 데려가지 않는다. 이중등록이 문제가 돼 경기에 출전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승현(오리온스)과 김지후(KCC)는 현재 고려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만 KBL 드래프트에서 선발돼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다. KBL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들의 리그 출전을 허용한다. 둘은 체전이 벌어지는 기간인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고려대로 복귀해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등록규정 문제로 체전에 나갈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둘은 체전에 나가지 않아도 그 기간에 벌어지는 KBL 리그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한다. 대학농구연맹과 KBL이 합의한 사항 때문이다. 대학연맹과 KBL은 올해 제주도에서 열리는 체전 기간에 졸업예정자들이 체전에 참가하지 않아도 리그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결국 둘은 체전이 벌어지는 기간에 소속팀에 남아도 벤치만 지켜야 한다. 해당되는 선수는 이승현과 김지후 뿐이 아니다. 김영훈(동부), 배수용, 박민혁(이상 모비스), 이현석(SK), 이진욱(전자랜드), 한성원(KCC), 석종태(KGC) 등도 체전에 출전하는 대학들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들이다.

프로농구 관계자는 "체전에 출전하지 않는 대학 소속의 졸업 예정자들은 리그에 계속 참여하고, 체전에 출전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는 쉬어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 따라야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수원의 자멸…전북, 독주체제 굳히나?

수원, 성남과 2-2…선두추격 비상
전북은 인천에 2-0…승점 7점차로

Hyundai Oilbank K LEAGUE CLASSIC 2014 〈32R〉

2011년 이후 3년 만의 왕좌 탈환을 꿈꾸는 전북 최강희 감독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올 시즌 K리그 클래식(1부 리그)에서 전북과 선두 다툼을 하던 수원이 스스로 무너졌다. 수원은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남과의 정규리그 32라운드에서 2-2로 비겨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박빙이던 1위 쟁탈전도 이제 전북의 '굳히기'로 이어질 분위기다.

전날(18일) 인천 원정에서 2-0 완승을 거둔 전북은 19승8무5패로 승점 65가 됐다. 31라운드까지 승점 57을 쌓은 수원은 26일 전북 원정 맞대결(33라운드)에 앞서 격차를 최소화하려 했지만 성남전 무승부로 물거품이 됐다. 전북과 수원의 승점차는 이제 7점차다.

수원은 전반 2분 김두현의 헤딩골로 기분 좋게 앞서갔다. 악몽은 9분 뒤 시작됐다. 성남 정선호의 중거리 슛이 김동섭의 몸을 맞고 굴절돼 골라인을 넘었다. 전원이 밀집수비를 펼친 성남을 뚫기 위해 수원은 정대세-이상호-권창훈 등 공격 옵션들을 대거 투입해 필승 의지를 불태웠고, 9월 21일 득남한 정대세가 후반 36분 자축포를 터뜨려 승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끝까지 웃을 수 없었다. 홈경기 종료 직전 꾸준한 득점포로 '빅버드 극장'을 연출해온 수원은 이날 반대로 '빅버드 극장'에서 눈물을 쏟았다. 후반 추가시간 수비 실책으로 성남 제파로프에 동점골을 내줬다. 최근 11경기 무패(6승5무)를 이어갔지만 승점 3점이 아쉬운 상황에서 무승부는 패배 못지 않은 좌절로 다가왔다. 수원 서정원 감독은 "1% 가능성에도 실점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침통해했다.

부산-경남이 맞붙은 '바닥권 전쟁'에서는 부산이 닐슨 주니어-박용지-이경렬-임상협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4-0으로 크게 이겼다. 꼴찌 경남은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2부리그 강등 위험이 더 높아졌다. 울산-상주전에서는 울산이 결승골로 연결된 'PK 논란' 속에 멀티골을 기록한 양동현의 활약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울산은 전남을 제치고 6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수원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슈틸리케 황태자 남태희 골맛

박주영도 사우디리그 데뷔전 결승골

손흥민(22·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에서 골 소식을 전한 가운데 중동에서 뛰고 있는 한국 공격수들도 골 행진에 가세했다. 파라과이,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통해 '슈틸리케의 황태자'로 떠오른 남태희(23·레퀴야SC)는 19일 알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 카라이티야트와의 2014~2015 카타르 스타스리그 7라운드에 출전해 0-0으로 양 팀이 팽팽하게 맞선 후반 44분 결승골을 터뜨렸다.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올 시즌 4호골을 신고한 남태희는 득점랭킹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샤밥에서 뛰고 있는 박주영(29)이 오랜만에 골 소식을 전했다. 박주영은 프린스 파이살 빈파드 경기장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리그 알 힐랄전에서 후반 12분 교체 투입돼 0-0 상황이던 후반 종료 직전 극적인 결승골을 뽑아내며 팀 데뷔전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다. 박주영이 소속 클럽에서 골을 넣은 것은 셀타비고 임대 시절인 지난해 3월 16일 데포르티보 전 이후 무려 582일 만이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힝기스, WTA투어 크렘린컵 여자복식 우승

'영원한 알프스소녀' 마르티나 힝기스(34·스위스)가 19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투어 크렘린컵에서 여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플라비아 페네타(이탈리아)와 짝을 이룬 힝기스는 결승에서 카롤린 가르시아(프랑스)-아란차 파라 산토나(스페인) 조를 2-0(6-3 7-5)으로 꺾었다. 2007년 은퇴한 힝기스는 지난해 7월 현역 복귀 후 투어 대회 세 번째 복식 우승을 일궜다.

김종규 인천장애인AG 사이클 추발4km 金

김종규(30)가 19일 인천 국제벨로드롬에서 열린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사이클 남자 개인전 B(시각부문) 추발 4km 결선에서 4분40초35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2010광저우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 김종규는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